

해외 연수기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National Jewish Health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의 예영민입니다. 저는 2012년 8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늘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이나믹 코리아'에 다시 한 번 눈이 휘둥그래지며,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한 곳은 우리 학회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녀오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National Jewish Health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신유섭 선생님께서 다녀오셨으며, 그곳에서 모든 한국인 연수자들의 안착을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의 선생님을 소개 받았습니다. 김병의 선생님은 2006년부터 National Jewish Health (NJH), Division of Pediatric Allergy and Immunology에서 Donald YM Leung과 함께 아토피피부염에서 innate immunity와 skin barrier protein에 대해 연구하시며, 한국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Dr. Leung은 NJH라는 소속보다는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의 Editor-in-Chief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입니다. 매우 철저하신 분, 열심히 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당겨주시는 분, 창문이 없는 연구실에서 책과 컴퓨터와 씨름하시는 분, 옆방에서 떠드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 등등 처음 연수가 결정되었을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잖이 걱정을 해주셔서 충분히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수 시작하기 1년 전 학교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력서와 함께 연수 기간 동안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토피피부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염증성 피부 알레르기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지만 주요 피부병변은 팽진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성두드러기에 대해서는 피부장벽은 물론, 면역학적인 기전에 대해서도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JH에서 아토피피부염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연구들을 만성두드러기에 적용하여 병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본원 IRB의 승인을 얻어 피부조직 및 혈액 등 연구에 필요한 검체를 준비하였습니다. 출발 6개월 전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 알레르기학회에서 Dr. Leung, 김병의 선생님, 박해심 교수님과 함께 구체적인 연구방향과 연수 전 준비해야 할 술기 (RT-PCR, Western blotting, tape stripping sampling, immunostaining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쫓기듯 마감에 임박하여 헐레벌떡 마무리하던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날 밤, 덴버의 한 영화관에서 총기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개통되지 않았고, 말 통하는 이웃은 차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애만 태우고, 태평하게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를 들러보며 지냈습니다. 곧 인터넷이 개통되면서 총기사건을 알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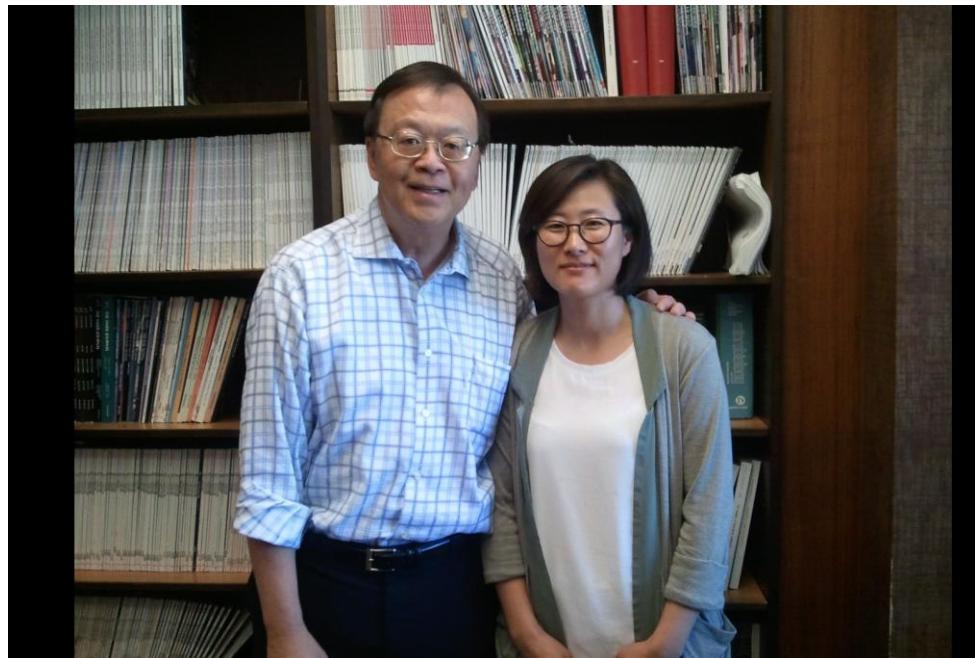
제가 일 할 실험실의 매니저, 조앤도 딸이 총상을 입는 큰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또한 더 급한 불이 저에게도 떨어졌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2013년 미국 알레르기학회의 초록 마감이 9월19일이며, 그 때까지 실험을 끝내고 8월말에 1차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아직 시차적응도 안 되고, 'Mile High City'란 별칭에 걸맞게 1마일에 달하는 고도 덕분에 상대적인 철 결핍성 빈혈로 피곤하고, 눈 앞이 깜깜한 채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김병의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약속한 시간 안에 1차로 계획했던 실험들이 마무리 되어 초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1 주일 사이 이십여 차례 초록 수정에 대한 코멘트와 추가해야 할 실험에 대한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리던 연수생활과 많이 다른 것 같아 힘겨웠지만, 이제 되짚어보니 Dr. Leung의 철저함, 넓은 통찰력, 추진력 등을 결눈질로나마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실험실 연구원들과 함께

다행히, 제가 바쁘게 미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가족들은 학교, 교회, 그리고, 먼저 연수를 시작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여유롭게 미국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개월 먼저 덴버생활을 시작하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김상하선생님 가족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아이들을 위해 좋은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수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도 서로 나누고, 조그만 일에도 함께 감사하고 걱정해주는 마음들이 덴버의 푸른 자연만큼이나 우리를 다독여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계획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나의 연구뿐 아니라 함께 떠날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1년이었지만,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이제 제 발음에 대해 훈수를 둘 정도로 영어에 대해서는 어깨를 추켜 세우고 있고, 남편은 골프, 캠핑, 낚시 등

개원의로써 감히 넘볼 수 없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어머니는 뜨개질 인형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아이들 방학에는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부터 미국 동부와 서부, 플로리다, 벤쿠버까지 두루 다니면서 오래도록 곱씹을 수 있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Dr. Leung과 함께



Maroon Bells에서 가족들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실험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애지중지 가져갔던 샘플들은 곧 바닥이

났습니다. 몇 차례 송구스런 마음으로 저희 교실의 교수님들과 외래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늘 필요한 때에 기꺼이 보내주시면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연수기간이 짧게만 느껴졌는데, 돌아오니 아주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 웰빙센터 신축과 함께 외래는 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더군요. 제 빈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몇 곱절로 열심히 일 하셨을 모든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식구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말 학회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갑게 손 잡아 주시고 연수생활에 대해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실험과 논문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Dr. Leung과 김병의 선생님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다시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많은 분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다이나믹 알레르기", "다이나믹 코리아"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